

학생처

아산사회복지재단

05505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 (02)3010-2560 / FAX : 2045-4010 / 담당 : 김정섭 과장

문서번호 : 복지사업팀-2022-00052호

시행일자 : 2022. 1. 17.

수 신 : 대전보건대학교 총장님

참 조 : 학생처장

제 목 : 제34회 아산상 수상 후보 추천 의뢰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재단은 1977년 설립된 이래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돋는다’는 설립이념에 따라 의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아산상과 아산의학상 시상 등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봉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한 아산상 수상 후보 추천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부문 : 의료봉사상, 사회봉사상,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2) 접수마감 : 2022년 4월 22일(금)

* 별 첨 : 제34회(2022년) 아산상 시상요강
제33회(2021년) 아산상 부문별 수상자 현황

※ 시상요강 및 추천서, 공적서 등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
(www.asanfoundation.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2022061 (2022.01.20.)

제34회 아산상 시장요강

1. 취 지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 왔거나 효행 및 가족사랑을 실천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인사와 단체를 빌굴·포상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코자 함.

2. 시장내용

시상부문	인 원	상 금	비 고
아 산 상*	1명(단체)	3억원	* 추천 부문이 아님
의료봉사상	1명(단체)	2억원	
사회봉사상	1명(단체)	2억원	
복지실천상	5명 이내	각 2천만원	
자원봉사상	5명(단체) 이내	각 2천만원	
효행·가족상	5명 이내	각 2천만원	

3. 수상자의 자격 및 요건

1) 자 격

- (1) 아 산 상 : 전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 (2) 의료봉사상 :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3) 사회봉사상 :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개인 또는 단체 (시설장·기관장 포함)
- (4) 복지실천상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복지대상자들의 보호와 교육, 재활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 (시설장 제외)
- (5) 자원봉사상 :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대학생 동아리 포함)
- (6) 효행·가족상 : 부모에 대한 효행, 자녀에 대한 헌신적 사랑과 가족 간 우애로 건전한 가정문화 형성에 기여한 사람 (다문화 가정 포함)

2) 요 건

- (1) 단체의 경우는 정회원 10인 이상일 것
- (2) 효행의 경우 대상자가 생존해 있을 것

4. 추천인의 자격

- 1) 전국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의 장
- 2) 대학의 장
- 3) 사회단체의 장(지회장 포함)
-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장(지회장 포함)
- 5)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의 장
- 6) 재단이 위촉한 인사

5. 추천 시 유의사항

- 1) 추천인은 시상부문별로 1명(단체)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음.
- 2) 개인의 공적내용이 주로 소속 봉사단체의 활동인 경우 해당 봉사단체를 추천해야 함.

6. 추천서류

- 1) 개인 추천 : 추천서(서식 I), 개인이력서(서식 II-1), 공적조서(서식III)
- 2) 단체 추천 : 추천서(서식 I), 단체소개서(서식 II-2), 공적조서(서식III)

※ 서식 내려 받기 : 재단 홈페이지(<http://www.asanfoundation.or.kr>)

※ 추천서류 이외의 증빙서류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에 한하여 현지조사 시 접수예정

7. 추천 방식 및 기한

- 1) 온라인 추천 : 재단 홈페이지 접속 및 추천서 제출
- 2) 접수 마감 : 2022년 4월 22일(금)

8.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1) 수상자 발표 : 추천기관에 개별통보(9월 예정) 및 일간지 공고
- 2) 시상 : 2022년 11월 25일 (예정)

9. 기타

- 1) 수상공적의 허위사실 또는 위법행위 등으로 아산상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수상자로서 부적격한 행위가 밝혀진 경우 수상자 선정과 시상을 취소함.
-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3) 문의 : 재단 사무처 (E-mail: asanwelfare@amc.seoul.kr / TEL: 02-3010-2560, 2559)

제33회(2021년) 아산상 부문별 수상자 현황

부 문	수상자(단체)	주요 공적내용
아 산 상	김우정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캄보디아 저소득 환자들의 무료 진료와 치료를 위해 2007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지역에 헤브론병원을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음. 헤브론병원은 현재 11개 진료과, 30명의 전문의, 93개 병상을 갖춘 종합 병원으로 성장하여 월평균 5,000여 명의 저소득 환자들을 진료하고, 매달 60여 건의 수술을 시행하는 지역사회의 주요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았음. 이외에도 간호대학 설립, 전공의 프로그램 운영 등 현지 의료인 양성을 통해 캄보디아 의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
의료봉사상	최영아	2001년 내과 전문의 취득 후 노숙인 등 의료보험이 없는 취약계층을 무료 진료하는 다일천사병원, 요셉의원, 다시서기의원, 도티기념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봐왔으며, 2017년 도티기념병원이 폐원하자 인근의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시립 서북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기존에 돌봐왔던 환자들을 계속해서 진료해오고 있음. 또한 여성 노숙인들에게 주거와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더하우스'를 설립하고 취약계층의 재활과 회복을 돋는 '회복나눔 네트워크'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음.
사회봉사상	권순영	재미교포 식품영양학자로 기아로 고통 받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현실을 목격하고 2003년 비영리단체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여 콩 생산을 기반으로 한 현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음. 아프가니스탄에 '지속 가능한 콩 산업'을 창출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지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사업 및 무료급식 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사회공헌 활동 역시 꾸준히 이어오고 있음.
복지실천상	양춘자	대안양육가정인 대구SOS어린이마을에서 24년간 근무하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하는데 헌신하고 있음.
	장현봉	고성정신요양원 생활재활과장으로 지난 27년간 생활인들의 사회복귀 훈련, 일자리 연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 등을 다양하게 전개해왔음.
	정혜숙	아동복지시설 동성원에서 31년간 근무하며 500여 명의 영유아를 보육 및 교육시키는 등 아동 양육과 교육, 자립에 기여하였음.
	조미숙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으로 발달지체 영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확대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38년간 헌신해왔음.
	황태민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지원팀 팀장으로 지난 27년간 국내 시각장애인 스포츠 발전과 시각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음.
자원봉사상	키니스장난감	은퇴자들이 주축이 되어 무료 장난감 수리 봉사를 하고 있으며, 기부 받은 장난감들은 수리 후 사회복지시설 및 지자체 등에 기부하고 있음.
	김문규	1994년 장애인시설 봉사활동에서 시작해 14개의 봉사단체 연합인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를 창립하고 봉사단원들과 함께 복지시설 급식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에 참여하고 있음.
	박정순	1980년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시작으로 의용소방대, 적십자 활동, 짐장봉사, 독거노인을 위한 밀반찬 조리, 재난지역 복구 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해왔음.
	이요셉	디큐멘터리 사진작가로 국내 비영리단체와 함께 아프리카의 빈곤, 질병, 재난 등의 현장을 촬영하고 구호가 필요한 상황을 알리는데 기여해왔음.
	이유근	지난 42년간 제주도 의료발전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부활동에 기여하였고 제주지역 지역사회 자원봉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공헌했음.
효행·가족상	김미애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으로, 치매 증상이 있는 시어머니를 돌보며 기족들을 부양해왔음. 웃음치료사와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복지관, 요양원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음.
	송경준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동 1명과 비장애 아동 1명을 공개 입양해 양육하면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해왔음.
	이명옥	38년간 시부모와 8남매를 부양하고, 선천성 구순구개열로 태어난 아들의 치료를 위해 헌신해왔음. 이외에도 25년 간 새마을 부녀회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음.
	임정숙	남편과 결혼 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시부모를 정성껏 부양했고, 다섯 자녀를 양육하며 46년간 희목한 가정을 이끌었음.
	횡일용	대가족의 맏며느리로 직장생활을 하며 시조모를 10년 동안 모셨고, 44년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95세 시모를 보살펴왔음.